


Wycliffe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사순절묵상집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 4:1-2)

사순절은 영적 갱신과 묵상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수많은 전통과 관습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40일 동안 특정 음식이나 악행을 삼가는
식으로 겸손과 회개를 실천하여 부활절 전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절기의 일부로 사순절을 지켜오셨을
수도 있고, 그 전통을 따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뭔가를 삼가하든 아니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마지막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들에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며 부활절 전 40일을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은 사순절의 6주간을 상징하는 여섯 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정복과 구원의 소망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몇 가지 구절들을 묵상하며 그 각각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강력한 교훈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목상 1

최 후 의 만 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19)

예 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특별히 유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탁은 차렸으나 장식은 없었습니다. 공들인 메뉴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감사한 표시로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만찬에서 중요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눅 22:34). 제자들이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논쟁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눅 22:24).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만찬의 주빈 예수님을 배신하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일찍 그 자리를 뜬다 (요 13:30).

마지막 만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고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눅 22:19-20).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b)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밤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의 희생을 기억함으로써,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누가복음 22:18b)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묵 상 질 문

- »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어떤 메뉴를 택했겠습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손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 »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 »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상 2

갯세마네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b)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싶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집에 특별한 공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일회성 방문이 아니었고,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 (요 18:2) 이었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동산으로 마지막 걸음을 옮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아버지께 울부짖기 위해 동산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예수님의 영적으로 너무나 버겁고 괴로운 나머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22:44).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로 지나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한편 제자들은 점점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 동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여러 번 경고하시며 기도할 것을 독려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눅 22:46).

그러나 제자들을 세 번째 깨우실 때는 이미 결심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두신 길을 맞아들일 시간이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시험에 빠져 기도를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셨지만, 그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고통과 씨름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겿세마네에서 드린 그분의 기도는, 예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면서도 온전히 인간이기도 하셨음과 (골 2:9, 빌 2:6-8),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 받는 것을 어려워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깊은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 맞춰졌습니다.

잠시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막 14:42).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 상 질 문

- » 나에게는 기도하기 위해 가는 곳,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장소에서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걸까요?
-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산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유혹과 고난에 맞서기 위한 기도의 동산에 나와 함께 들어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 »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목 상 3

재 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27:14a)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말과 신념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 가신지 몇 시간 후에, 예수께서는 배반 당하셨고, 체포되었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했고, 공의회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마 27:11b). 그러나 그 후 예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한 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했을 때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 27:12).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업신여기며 희롱했을 때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눅

23:11). 빌라도가 기소된 내용들에 대해 답을 요구했을 때도,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 27:13).

전도서에서도 말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전 3:7b).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과 증오를 쏟아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 뜻이 어떤 것인지,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사야 53:7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특별히 큰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셨고,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침묵하며서 계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목 상 질 문

- » 침묵했어야 했는데 논쟁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까요?
- »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내가 군중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 그 재판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목 상 4

행 악 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눅 23:14). 그러나 군중은 항의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선택권을 주어, 예수님을 풀어줄지 아니면 살인과 폭동죄로 잡혔던 바라바를 풀어줄지 결정하게 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합창했고, 바라바는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눅 23:23-35).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행악자는 바라바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범죄자는 매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과 군중들에게 합세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

하지만 다른 범죄자는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분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1).

그 두 번 째 범죄자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하며 자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그 십자가 위의 범죄자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느 때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또는 완전히 망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 상 질 문

- » 다수가 하는 짓에 동조하거나 주변의 압박에 굴복하여 동조한 후 나중에야 후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 » 두 번 째 범죄자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분께 자비를 구했던 걸까요?
- »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번 째 범죄자 사이의 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 상 5

가 족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26)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시점,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의 사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의 아들로써는 아직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눅 2:44-48),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예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땅에서는 더 이상 마리아를 봉양할 수 없을 것이었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엡 6:2)는 제 5 계명에 따라 마리아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나 요한복음 7:5절이 전하는대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지상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을 기록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는 순간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으로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고보나 다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 19:27)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셨으며,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결과를 안길지 고려하시고 이후 모친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시간 재능 재산 주변의 사람들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합니다. 모친 마리아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셨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총체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영적 평안*과 함께 육신의 평안까지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중요한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눅 16:10). 요한은 예수님께 그의 충성됨을 증명했기에 평생의 과업을 부탁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열망해야 할 충성, 헌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 ‘평안’ = well-being)

목 상 질 문

- »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한 마리아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한 과업을 부여받았을 때 요한은 어떻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수님께서 가족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